‘돈되는’ 고흥만 간척지 잡아라

올 하반기 공사 마무리…연간 77억원 수익 기대

‘영농법인 우선 임대’ 소문에 법인 설립만 100개

연간 최대 77억여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고흥만간척지의 기름진 농경지를 차지하기 위해 농민들이 앞다퉈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등 고흥만 일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올 하반기 고흥만간척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공사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만 임대해 줬던 1600ha(1600만㎡)의 농경지를 일반 농민에게도 빌려준다는 소문 때문이다. 간척지 쌀은 미질이 좋아 수익이 높고, 경지정리가 잘 돼 농민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붐을 이뤄 법무사무소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법무사이종일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사무실에서만 30곳의 영농조합법인이 만들어졌고, 고흥 지역 7개 사무실을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마을마다 1~2개가량의 영농조합법인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유명선법무사사무소도 최근 10건의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도왔고, 평소보다 2배가량 설립 문의가 늘었다.

현재까지 군에서 정확한 집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만 적어도 100여 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새로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농민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것은 고흥만간척지 공사가 마무리돼 관리 기관이 군에서 올해 농어촌공사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은 고흥읍과 풍양·도덕·두원면 등 4개 읍면 지역 농민 1100여 명에게만 농경지를 임대해 줬지만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맡으면서 영농조합법인에게 우선 임대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법인 설립이 늘고 있다.

고흥만 간척사업은 1991년 착공, 둑 공사와 농경지 조성이 마무리된 2009년부터 농민 1인당 1단지(4500평)의 논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한 해 많게는 700만원(평균 500만원)의 순수익을 내고 있다. 이는 전체 농경지로 환산했을 때 77억에 달하는 돈이다.

이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면, 더욱 많은 단지를 우선 임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농심’이 간척지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새로 생겨나는 법인이 많다 보니, 5명 이상 가입이라는 설립 조건을 맞추기 힘들어 가족과 타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까지 동원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군 관계자는 “아직 임대 일정과 조건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법인 설립 비용이 60만원이 넘고, 심사 과정에 비농업인과 타지역거주자를 가려낼 수도 있으니 법인을 만드는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청년 일자리 로드쇼’ 광주시는 4일 광주 서영대 운암관에서 대학생 등 청년 구직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라인 취업사이트인 ‘잡코리아’의 채용전망 설명회와 함께 삼성화재와 교원구몬, 서울검사(주) 등 6개 구인업체의 현장면접이 진행됐다. 〈광주시 제공〉

여수박람회 홍보관 임무 완료…취재지원 시설로

5년간 130만명 관람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여수시 수정동에 위치한 여수엑스포 홍보관이 5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오는 25일 폐관한다고 4일 밝혔다.

홍보관은 이후 내부 정리를 거쳐 박람회 기간에는 취재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여수엑스포 홍보관은 대지 6630㎡, 건축면적 1500㎡로 여수엑스포 개최와 홍보를 위해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관했다. 그동안 외국인 1만50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30만명이 관람했다.

정종열 관장은 “홍보관은 2007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놓고 모로코와 접전 끝에 ‘여수’라는 이름이 불리던 날, 10만 여수시민과 함께 감격의 기쁨을 누렸던 역사적인 장소”라고 밝혔다.

여수엑스포는 5월 12일부터 3개월간 여수 신항 일대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주암호 방류 사흘만에 광주천 수질 23% 개선

2020년 2급수 달성 목표

주암호 물을 광주천에 방류한 이후 광주천의 수질이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천 상류에서 주암호 물을 시험 통수한 결과, 통수 전에 비해 광주천 수질이 23%가량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갈수기 물부족 및 수질악화를 우려해 주암댐 원수를 광주천에 방류키로 중앙정부와 협약하고 국비 87억원을 투입, 지난 2월 말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통수 후 광주천 중류 광천1교 지점에서는 기존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8.0㎎/ℓ에 비해 35%가 감소한 5.2㎎/ℓ로 나타났으며, 상류구간인 방학교에서 평촌교 구간은 평균 약 23%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주암호 물 인입, 영산강 하천수 순환 등 지속적인 수질 개선 작업을 통해 오는 2015년 3급수(BOD 5㎎/ℓ 이하), 2020년 2급수(BOD 3㎎/ℓ 이하)를 달성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국군포로 딸 가족 포함

탈북자 5명 극비 입국

국군포로 고(故) 백종규씨의 딸 영옥씨 가족을 비롯해 탈북자 5명이 최근 극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3일 “중국 내 한국 공관에서 3년간 체류해온 탈북자 5명이 지난 1일 국내에 들어왔다”면서 “이들은 현재 관계기관의 보호 속에 탈북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국한 국군포로 백씨의 가족은 차녀 영옥씨와 외손자 이강민군, 외손녀 이일심 양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북한을 탈출한 뒤 베이징 총영사관에 들어간 뒤 지금껏 한국행을 기다려왔다.

앞서 장녀인 영숙 씨는 2004년 4월 아버지 백 씨의 유해를 안고 입국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이들에 대해 제3국 추방 형식으로 한국행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26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시점에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목포 비즈니스호텔·신안 조미김 공장 등

전남도 7개 기업 884억 투자협약

전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예맛식품 등 7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88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유)건영은 목포시 상동에 87억원을 투자해 72실 규모의 비즈니스호텔을 신축한다.

또 ㈜예맛식품은 신안 압해면에 118억원을 투자해 전남산 생산원료를 활용, 조미김 가공공장을 세우게 된다. ㈜우리물은 장성군에 86억원을 투자해 2013년부터 울금을 첨가한 기능성 음료와 생수 생산 공장을 조성한다. 이 밖에 (주)뉴그린코리아와 (주)이지라이팅은 나주시와 장성군에 43억원과 27억원을 투자해 LED 조명기구를 생산한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 협약으로 415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증거인멸’ 이영호·최종석 구속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밤 발부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불법사찰 증거인멸 관련 핵심인물인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재수사에 대해 “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본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직 9급 72대 1

15만명 응시 7일 시험

행정안전부는 행정직과 기술직 등 20개 직류의 9급 국가직 공무원 2180명을 선발하기 위한 필기시험을 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9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9급 공채시험 응시자는 15만 7159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72.1대 1이다. 시험과목은 직류별로 5과목이고 과목당 20분씩이다. 수험생은 오전 9시2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 : //gosi.kr)에서 발표된다. /연합뉴스

‘선관위 디도스’ 특검팀

경찰청 전산센터 압수수색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중인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4일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특검팀은 경찰의 디도스 사건 수사 당시의 전산기록 등 압수물을 분석해 사건 축소나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 수사 대상이 나와 있다.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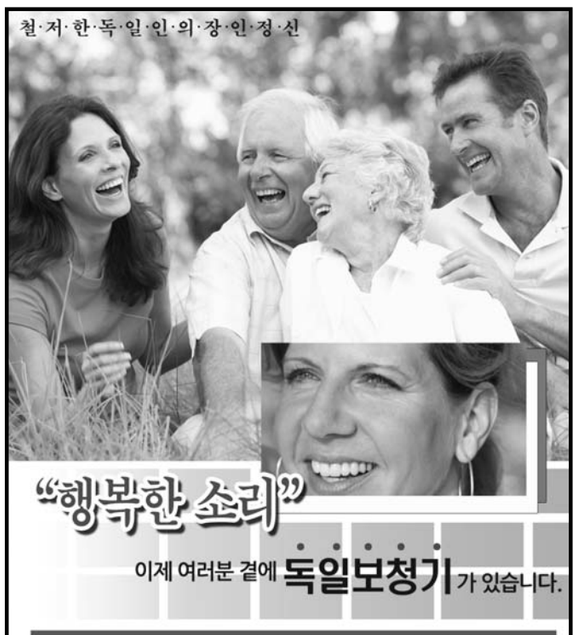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음향 이득효과가 큽니다.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공무원 대 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1. 대상 - 현직공무원, 기능직, 교직원, 군무원
2. 한도 - 300~7000만원
3. 금리 - 연~5.9%미만 (천만원당 月5만원미만)
4. 기간 - 1년~10년 중 선택 (본인선택, 연장가능)
❖과다대출, 연체(등급미달)자도 가능!!
❖고금리 대출 사용자 →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회생자, 신용불량자 → 100~500만원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한도는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644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부 제 642호)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